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 (고려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8.22.) 발표자료

목 차

1. 개관: 유사성과 상이성
2. 선심 정치(pork-barrel politics)
3. 파편화된 국회 (fragmented legislature)
4. 결론

1. 개관: 유사성과 상이성

-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 본 논문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란 1950년대 이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들로 한정(Shin 2011)
 - 민주주의란 (1) 행정부 수반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선출된 의회로부터 선임되고, (2)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입법부가 선출되고, (3) 야당이 허용되며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realistic chances)이 있는 정치체제로 정의됨(Cheibub et al. 2010)
 -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필리핀은 1946~65년까지와 1987년 이후 민주주의로, 인도네시아는 1999년 이후 민주주의로, 태국은 1975~76년, 1979~91년, 1992~2006년, 2011~14년까지 민주주의로 분류되는데, 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임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 선거정치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policy)보다 선심성 혜택(pork)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fragmentation)이 높다는 점
 - 정당 간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는 미미하며, 어떠한 후보자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심성 혜택(돈, 직업,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느냐가 선거 승리의 관건(Ufen 2007; Hicken 2009)
 - 국회의 파편성에 관하여, 필리핀 2013년 총선의 경우, 총 58개 정당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의석을 획득
 - 인도네시아 2014년 총선의 경우, 총 10개 정당이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의석을 획득
 - 태국 2011년 총선의 경우, 총 11개 정당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의석을 획득
- 선심성 혜택 중심의 체제(pork-centric system)와 국회의 높은 파편성은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됨
 - 선심 중심 체제에서 정치인들은 막대한 선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고(Chang 2005), 당선 후에는 국가 예산을 이용하여 선심성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음(Hicken and Simmons 2008)
 - 필리핀에서는 2012년 1년간 하원의원 1인당 미화 약 170만 달러, 상원의원 1인당 약 49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선심 제공에 사용함
 - 이는 필리핀 정부 예산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선심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식적으로 책정되는 선심 예산 외에도 각종 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
 - 정부는 거시적인 국가 개발 사업에 사용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선심 중심의 정치체제는 따라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Shin forthcoming)
 - 국회 내에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행정부 수반의 정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수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연정에서는 소수 정당들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다수의 연정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성(responsiveness)과 국정 수행 능력(performance)이 저하됨(Tsebelis 2002)
 - 다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치인을 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낮아짐(Lijphart 1999)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 간의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Thaksin Shinawatra)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임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민주화 이후 1999년에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list) 비례대표제(P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여 정당 중심의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필리핀 정치인들은 개방형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with an open ballot)를, 태국 정치인들은 블록투표제(block vote system)를 채택하여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실시해옴
 -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정치인들이 개인의 평판(reputation)보다 정당의 평판이 중요하므로 정당 간의 정책적 지향과 같은 정체성의 차이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음(Carey and Shugart 1995; Shin 2011)
 - 후보자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당의 평판보다 후보자 개인의 평판이 중요하므로 선심 제공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음(Carey and Shugart 1995; Shin 2011)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필리핀이나 태국 정치인들에 비하여 유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낮음
 - 2004년과 2009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 중심으로 개혁함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
선거정치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정치에서 선심성
혜택 제공은 득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이하인

개발도상국가들로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개발 지역에서

선심 정치가 특히

만연함

으로써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역시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있음(Ufen 2006)

- 국회의 파편성에 관하여, 선거를 통해 의석을 획득한 정당들의 파편성은 대개 유효정당수(ENPS: effective number of parties by seat share)로 측정하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효정당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비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2001년) 이전 평균 유효정당수는 5.8이었으나 2001년 이후 평균 유효정당수가 2.5로 급감함
- 논문은 이하 섹션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선거정치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되, 상이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선거제도에 따른 선심 정치의 차이와 탁신 등장에 따른 국회 파편성의 차이를 집중 분석할 것임

2. 선심 정치(pork-barrel politics)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정치에서 선심성 혜택 제공은 득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 승리이며, 이를 위하여 유권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함(Mayhew 1974)
 - 대체로 가난한 유권자일수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거시 정책보다는 돈이나 직업과 같은 선심성 혜택을 요구함(Banfield 1963; Scott 1972; Stokes 2005)
 - 저개발 국가나 지역일수록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선심을 제공함(Shin 2011)
 -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이하인 개발도상국가들로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개발 지역에서 선심 정치가 특히 만연함(Quimpo 2007; Tomsa 2008; Phatharathananunth 2008)
-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후보자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 정치는 더욱 기승
 - 정당의 공천 없이도 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선거제도를 “후보자중심 선거제도”로 분류할 수 있고, 반대로 정당의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권자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정당중심 선거제도”로 분류(Shin 2011)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하에서는 정당의 평판(reputation)보다 후보자 개인의

평판이 득표에 더욱 도움이 되므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개인적 혹은 지역적 혜택(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강한 반면, 정당중심 선거제도하에서는 정당의 평판이 후보자 개인의 평판보다 중요하므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약함(Carey and Shugart 1995)

〈그림 1〉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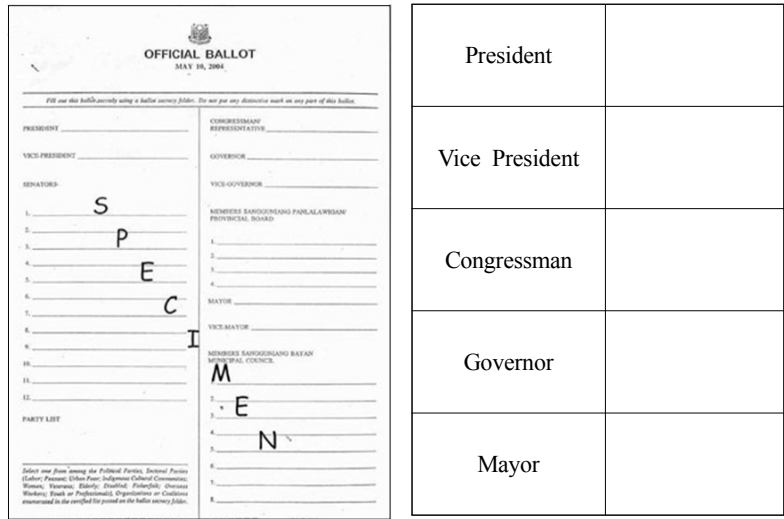
출처: PPP, constant 2005 international \$, World Bank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의 예로 같은 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경선제도(primary)와 중대선거구에서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도(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들 수 있고, 정당중심 선거제도의 예로는 정당이 명부상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closed-list PR)를 들 수 있음
- 필리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시 채택한 개방형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고, 투표용지에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아서 유권자들이 빈칸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당보다 후보자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극단적인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임(Shin 2013a)
- 태국 정치인들이 채택한 블록투표제 역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고 중대선거구제에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임(Hicken 2009)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후보자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정치는 더욱 기승

〈그림 2〉 필리핀의 개방형 투표용지

**1999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이후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선심 정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점점 더 확산됨**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인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함(Shin 2013a)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의 필리핀과 태국 정치인들이 정당중심 선거제도의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에 비하여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더욱 강하고(Shin 2013a), 그 결과 선심 정치는 필리핀과 태국에서 더욱 만연함(Ufen 2007)
- 1999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이후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선심 정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점점 더 확산됨(Shin 2013b)
 - 2004년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flexible-list PR)로 변경하였는데, 새 선거제도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에는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인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open-list PR)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정당명부 상의 순위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됨
 -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치인들도 유권자에 대한 개인의 평판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선심성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Shin 2013b), 인도네시아 정치의 “필리핀화”를 초래함(Ufen 2006)

3. 파편화된 국회(fragmented legislature)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여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일반적으로 국회의 파편성은 유효정당수로 측정(Laakso and Taagepera 1979)

$$N = \frac{1}{\sum_{i=1}^n p_i^2}$$

(p는 각 정당의 의석점유율)

- 갑 나라 국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95석과 5석을 획득하고, 을 나라 국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55석과 45석을 획득한 경우, 명목상 정당수는 양자 모두 2개로 같으나 유효정당수는 갑이 1.10, 을이 1.98로서 갑은 사실상 일당체제, 을은 양당체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 이전에는 민족당(Nationalist Party: *Partido Nacionalista*)-자유당(Liberal Party: *Partido Liberal ng Pilipinas*) 양당체제였으나 1986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로 전환됨

〈표 1〉 필리핀 하원 정당수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46	5	2.3
1949	3	2.1
1953	3	2.2
1959	3	1.5
1961	2	1.7
1987	10	6.6
1992	6	3.1
1995	11	2.9
1998	21	2.9
2001	21	4.1
2004	28	4.4
2007	46	6.2
2010	58	5.3
2013	58	5.2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여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은
상당히 높은 편**

주: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거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당수는 <표 1>에서보다 많을 것임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정치인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득표율이 의석률로
비례적으로 전환되어
소정당이 의석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비례대표제(PR)를
채택하였고 둘째,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일명 연미복 효과가
부재하기 때문**

- 민주화 이전의 유효정당수는 1.5와 2.3 사이로 평균 1.96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유효정당수는 2.9와 6.6 사이, 평균 4.52로 증가함
- 민주화 이전 양당제를 유지한 이유는 첫째, 소선거구제 실시로 소정당의 의석 획득이 어려웠고, 둘째,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어 강력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는 야당이 단합하였기 때문임(Choi 2001; Hicken 2009)
- 민주화 직후인 1987년 선거부터 정당수가 급증한 이유는 첫째,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선이 금지됨으로써 강력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 야당이 분열되었고(Choi 2001; Hicken 2009), 둘째, 1998년부터 소선거구제와 함께 실시된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많은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였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초의 민주 선거였던 1999년 총선에서 21개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여 유효정당수는 4.7이었으나 이후 유효정당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총선에서는 8.2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득표율이 의석률로 비례적으로 전환되어 소정당이 의석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비례대표제(PR)를 채택하였고(Lijphart 1990), 둘째,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일명 연미복 효과(coattail effect)가 부재하기 때문임

〈표 2〉 인도네시아 하원 정당수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99	21	4.7
2004	17	7.1
2009	9	6.1
2014	10	8.2

- 태국의 경우, 1975년 최초의 민주 선거 이후 1996년 총선까지 유효정당수가 4.1에서 7.8 사이로 평균 5.8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 탁신의 타이락타이(Thai Rak Thai: Thais Love Thais) 정당 등장 이후 유효정당수는 1.7에서 2.8 사이, 평균 2.5로 급감하였음
- 탁신 등장 이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높았던 이유는 첫째, 중대선거구제인 블록투표제를 실시하여 소정당들의 의석 획득이 용이했고, 둘째, 군부의 잦은 정치 개입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강력한 집권당을 건설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득표를 거두는 거대정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임(Hicken 2006)

〈표 3〉 태국 하원 정당수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75	12	7.6
1976	19	4.1
1979	9	5.2
1983	10	4.8
1986	15	6.1
1988	15	7.8
1992. 3	11	6.0
1992. 9	11	6.1
1995	11	6.4
1996	11	4.3
2001	9	2.5
2005	4	1.7
2007	7	2.8
2011	11	2.6

주: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거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당수는 <표 3>에서보다 많을 것임.

- 탁신 등장 이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한 이유는 첫째, 탁신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탁신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심성 혜택을 대규모로 살포하여 특히 가난한 농촌지역인 동북부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헌법을 개정할 때, 선거제도를 소정당 후보도 비교적 쉽게 당선 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블록투표제)에서 소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로 개혁하였기 때문임(Hicken 2006)

4. 결론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에서는 정책(policy)보다 선심성 혜택(pork) 제공이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함
 - 이는 주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정책보다 선심을 요구하기 때문임
 -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는 선심 정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에서는
정책(policy)보다는
선심성 혜택(pork)
제공이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함.
이는 주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정책보다
선심을 요구하기
때문임**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의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이

상당히 높음.

이는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블록투표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때문임

-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 정치는 더욱 만연함
 - 대체로 필리핀과 태국의 후보자중심 선거제도 때문임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역시 선심 정치가 증가 추세임
 - 선심 중심의 체제(pork-centric system)로부터 정책 대결 중심의 체제(policy-centric system)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의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이 상당히 높음
 -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블록투표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때문임
 -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국정 수행 능력(performance)를 저해하는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함
-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
 - 1997년 소선거구제의 채택과 막대한 선심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등장 때문임
 - 2006년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유효정당수(국회 파편성) 소폭 증가함
 - 2011년 총선에서 탁신 여동생(Yingluck Shinawatra)의 주도로 탁신 세력 재집권함
 -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실각한 탁신 세력의 재기 여부가 향후 국회 파편성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임

참고문헌

- Banfield, Edward C., and James Q. Wilson. 1963. *City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ey, John M., and Matthew Soberg Shugart. 1995. "Incentives to Cultivate a Personal Vote: a Rank Ordering of Electoral Formulas." *Electoral Studies* 14 (4):417-39.
- Chang, Eric C. C. 2005. "Electoral Incentives for Political Corruption under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7 (3):716-30.
- Cheibub, José Antonio, Jennifer Gandhi, and James Raymond Vreeland. 2010.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Public Choice* 143 (1-2):67-101.
- Choi, Jungug. 2001. "Phil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Elections, Term Limits, and Party Systems." *Asian Survey* 41 (3):488-501.
- Hicken, Allen D. 2009. *Building Party Systems in Developing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en, Allen D. and Joel W. Simmons. 2008. "The Personal Vote and the Efficacy of Education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 (1):109-24.
- Hicken, Allen. 2006. "Party Fabrication: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Rise of Thai Rak Thai."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381-407.
- Laakso, Markku, and Rein Taagepera. 1979.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3-27.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0.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1945-8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2):481-96.
- Mayhew, David R.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hatharathananunth, S. 2008. "The Thai Rak Thai Party and Elections in North-Eastern Thailand."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 (1):106-23.
- Quimpo, Nathan Gilbert. 2007. "The Philippines: Political Parties and Corruption." *Southeast Asian Affairs* 10:277-94.
- Scott, James C. 1972.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hin, Jae Hyeok. Forthcoming. "Legislative Voting in the Pork-Dominant Parliament: Evidence from the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1987-2007."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Shin, Jae Hyeok. 2013a. "Electoral System Choice and Parties in New Democracies: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In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Clientelism and Electoral Competition in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ed. D. Tomsa and A. Ufen. Milton Park,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 Shin, Jae Hyeok. 2013b. "Voter Demands, Access to Resources, and Electoral Reforms in Indonesia."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t San Diego, CA.
- Shin, Jae Hyeok. 2011. *Electoral System Choice and Personalistic Parties in New Democraci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tokes, Susan C. 2005. "Perverse Accountability: A Formal Model of Machine Politics with Evidence from Argent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3):315-25.
- Tomsa, Dirk. 2008. *Party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Golkar in the Post-Suharto Era*. New York: Routledge.
- Tsebelis, George. 2002.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Ufen, Andreas. 2007. "Political Party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sation in Southeast Asia: A Comparison of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Working Paper No.44.
- Ufen, Andreas. 2006. "Political Parties in Post-Suharto Indonesia: Between *politik aliran* and 'Philippinisation'."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Working Paper No.37.

❖ 저자 약력

■ 신재혁

現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듀크대 정치학과 객원조교수와 Rhodes College 국제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후, 2013년부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제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와 정당, 국회 등이며, 최근 연구로 "Voter Demands, Access to Resources, and Party Switching: Evidence from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1988-2008", "Cabinet Duration in Presidential Democracies", "Electoral System Choice and Parties in New Democracies: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